

2025.12.31
주간 제 455 호



중국창업
WEEKLY 뉴스 | CHINA 창업 | KIC 뉴스

발행처: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전화:+86-10-6780-8840

센터장: 김종문
메일문의: info@kicchina.org

WEEKLY 뉴스

중국, 세계 최초 12 인치 탄화규소 에피택셀 웨이퍼 개발 성공	P1
징(京)AA0001Z! 중국 최초 L3 자율주행 전용 번호판 발급...베이치 첫 주자	P1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 CATL, 전기 원양 선박 사업 본격 추진	P3
외국계 기관 2026 년 중국 경제 전망: 성장률 4.5% 내외, 물가는 플러스 전환	P3

CHINA 창업

[산업분석] 2026 년 휴머노이드 로봇 전망	P7
[산업분석] <사이언스> 2025 년 '10 대 과학기술 혁신 성과' 발표, 중국 여러 연구성과 선정	P14
[기업분석] 중국 자율주행 풀스택 기술 및 운영 서비스 제공업체 - 모구처렌(蘑菇车联)	P20
[지역분석] 옌자오 하이테크구	P28

KIC 뉴스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일행, KIC 중국 방문	P30
KIC 중국, 한중 청년과학자 교류 좌담회서 한중일혁신협력센터와 MOU 체결	P32
KIC 중국 창업대회 개최	P33

행사 정보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P34
------------------	-----

WEEKLY 뉴스

■ 중국, 세계 최초 12인치 탄화규소 에피택셜 웨이퍼 개발 성공

중국이 세계 최초로 300mm(12인치) 탄화규소(SiC) 에피택셜 웨이퍼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중국 3세대 반도체 산업의 규모화 생산과 비용 절감 실현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품은 한텐텐성(瀚天天成·Epiworld)이 개발했으며, 기존 주력 제품인 6인치 제품보다 크기가 더욱 확대됐다.

탄화규소는 고전압, 고온, 고주파 환경에 강한 특성을 지닌 3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다. 12인치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칩 수는 6인치 제품의 4.4배, 8인치 제품의 2.3배 달한다. 이에 따라 단위 웨이퍼당 생산 효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전력 반도체 제조 비용이 낮아지고, 전기차,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철도,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활용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핵심 공급망의 국산화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생산 장비와 기판 소재는 모두 중국 기업에서 공급했다. 제품의 주요 성능 지표도 안정적이다. 에피층 두께 불균일도는 3% 미만, 도핑 농도 불균일도는 8% 이내로 관리됐으며, 칩 수율은 96%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전력 반도체 기준을 충족한다.

한텐텐성(瀚天天成)은 이미 다양한 규격의 탄화규소 에피택셜 웨이퍼를 대량 공급해온 기업이다. 이번 12인치 웨이퍼 개발은 중국의 관련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체 기술과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3세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과 향후 산업 주도권 확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관련 제품의 양산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선벤 24 샤오스)

■ 징(京)AA0001Z! 중국 최초 L3 자율주행 전용 번호판 발급...베이치 첫 주자

12월 23일, 베이징에서 중국 최초의 L3 자율주행 전용 번호판이 공식 등록되었다. 베이치(北汽, BAIC)의 아크폭스(Arcfox·极狐) 알파 S(L3)가 '京 AA0001Z' 등 전용 번호판을 발급받으며, 중국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인 '합법 도로 주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앞서 해당 모델은 7일 전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로부터 자율주행 차량 양산·판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불과 7일 만에 첫 전용 번호판 등록이 완료되면서, '제품 승인'에서 '도로 주행'으로 이어지는 두 핵심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됐다.

이번 번호판 발급은 상징성이 크다. '징(京)AA0001Z'는 고속도로가 혼잡한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허용되는 전국 최초의 공식 번호판으로, 현재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대표한다. '징(京)AA0733Z'는 베이치 신에너지의 증시 코드 '0733'을 반영한 번호다. 베이치 신에너지는 중국 최초의 신에너지차 상장 기업으로, 사용자 경험 개선은 물론 투자자 신뢰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아크폭스 알파 S(L3)는 이번에 허가를 받은 차량 가운데 유일하게 라이다(LiDAR)를 장착한 모델로, 인지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하드웨어를 갖췄다. 번호판 발급에 앞서 이 차량은 엄격한 테스트와 평가를 거쳤으며, 공안 교통관리 부처가 주관한 자율주행 교통 규정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했다. 또한 지정 고속도로 구간에서 유관 부처와 함께 종합 비상 대응 훈련도 실시해, 실제 도로 주행을 위한 안전 기반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 차량들은 앞으로 징타이(京台) 고속도로와 공항 북선 고속도로 등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주행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이다.

아크폭스 알파 S(L3)가 중국 최초로 L3 '번호판 주행'을 실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 안전 분야에 대한 베이치의 오랜 기술 축적과 개방적 협력, 지속적인 자체 혁신이 있었다. 베이치가 독자 개발한 '위안징(元境) 인텔리전스' 기술 시스템은 L2 부터 L4 까지 전 단계 자율주행을 포괄하며, '시스템 기반 안전'을 핵심으로 하는 '1 핵 3 환(一核三环)' 안전 개발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자율주행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운행 중인 차량의 상태를 24시간 감시 및 분석하고, 운행 모니터링-데이터 분석-지속 개선으로 이어지는 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해, 주행 안전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베이치는 '위안징 인텔리전스(元境智能)' 기술을 전 차종에 적용해,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1~11 월 아크폭스 누적 판매량은 13 만 6,600 대로, 전년 대비 97.99% 증가했다. 아크폭스의 신형 모델 '알파 T5'는 세계 최초로 퀄컴 스냅드래곤 8775 통합 칩을 적용해, 도시형 NOA 기능을 15 만 위안 이하 가격대까지 확대했다. 베이징오프로드(北京越野)는 11 월 한 달 동안 2 만 2,400 대를 판매하며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BJ40 주행거리 확장형 위안징(元境) 스마트 주행 버전은 순수 비전 기술을 적용한 중국 최초의 오프로드 차량이다. 상제(享界)는 30 만 위안 이상 고급 신에너지 세단 시장에서 판매량 1 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2 월 인도량은 1 만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중국 최초 L3 자율주행 전용 번호판 발급은 베이치의 스마트 안전 기술 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인증인 동시에, 베이징과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스마트 커넥티드카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확장 가능한 '중국형 모델'이자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베이징르보)

■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 CATL, 전기 원양 선박 사업 본격 추진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CATL(宁德时代)이 대양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은 향후 3년 안에 전기 원양 선박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화물선의 전동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꼽히지만, 해운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약 3%를 차지하는 만큼 탈탄소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CATL은 세계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로, 현재 전 세계 전기차의 약 40%에 자사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해양 사업에서도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대형 내륙 크루즈선 '창장싼샤(长江三峡) 1호'에 CATL 배터리가 적용됐으며, 해당 선박에는 1만 개가 넘는 배터리가 탑재돼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저장 용량을 갖췄다. 해운 전문 매체 The Maritime Executive에 따르면 CATL은 신규 시장 확대와 함께 육상 충전 인프라 구축, 선박용 전력 관리 시스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쑤이이(苏怡怡) CATL 조선 부문 총경리는 "해운 탈탄소는 1조 달러 규모의 차세대산업"이라며 "선박 분야는 CATL의 사업 영역을 육상에서 해상으로 넓히는 중요한 분야이자,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ATL은 '선박-육상-클라우드'를 연계한 서비스 모델을 통해 엔드 투 엔드 전동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사 배터리, 대규모 충전 인프라, 클라우드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해상 운송의 전동화는 도로 교통과 달리 여러 기술적 제약이 따른다. 선박은 고습 및 고염 환경에서 운항해야 하고, 장거리 항해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CATL은 운항 환경에 맞춰 다양한 전동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내륙 화물선에는 컨테이너형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해 신속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람선은 순수 전기 방식을 우선 적용해 소음과 배출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승선 환경을 제공한다. 근해 선박의 경우 더 높은 출력이 요구된다. 원양 선박은 현재로서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불가피하지만, CATL은 고에너지 밀도, 경량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 장거리 순수 전기 운항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상상다이내믹서베이)

■ 외국계 기관 2026 중국 경제 전망: 성장률 4.5% 내외, 물가는 플러스 전환

JP모건·도이체방크·UBS·OECD·IMF·모건스탠리·뱅크오브아메리카·바클레이즈 등 글로벌 주요 투자·국제기구(이하 '외국계 기관')는 "중국이 성장 모델 전환과 수급 재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2026년 실질 GDP 성장률은 4.5% 내외를 중심에 둘 것"이라는 공통 시각을 내놓았다. 이들은 물가가 완만하게 회복되며 CPI는 플러스로 전환하고 PPI 하락폭은 눈에 띄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1. 경제성장률: 중간값 4.5% 내외

시장의 컨센서스: 주요 기관들 대부분은 2026년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약 4.5%로 보고 있다.(JP 모건, 도이체뱅크, UBS, OECD, IMF 등)

기관별 전망 차이: 모건스탠리(4.8%)는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026년 순수출의 GDP 기여도를 1.3%p로 추정(UBS의 추정치는 0.7%p)하며 수출 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 소비의 증가세 역시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4.7%) 역시 성장률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핵심 근거로 투자의 회복세를 제시하며, 전체 투자 증가율이 3.5%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프라의 경우 5천억 위안 규모의 신형 정책성 금융 도구 운용과 정부채 발행 확대를 배경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제조업은 한 자릿수 초반 성장에 그치고, 부동산 투자는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바클레이즈(4%)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며, 부동산 둔화와 저물가 위험이 계속해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2. 물가: CPI 플러스 전환, PPI 하락폭 축소

시장의 컨센서스: 2026년 중국의 CPI는 0~1% 수준으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기저 효과에 따른 하방 압력 완화와 식품 가격 하락의 부담 완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PPI는 하락폭이 -2% 이내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별 전망 차이: 차이는 주로 PPI가 언제 플러스로 돌아설지에 대한 판단에서 나오며, 이는 출혈경쟁 억제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차이에서 비롯된다. PPI의 플러스 전환 시점을 두고 모건스탠리와 도이치뱅크는 2026년 하반기를 예상하는 한편, UBS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로 보고 있다.

3. 소비: 소폭 둔화

시장의 컨센서스: 외국계 기관들은 대체로 2026년 소비 증가율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득 감소 우려, 부동산 부담 지속, 소비 보조금 확대 여력 제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서비스 소비, 정부 소비, 외국인 관광객 소비 부문에서 일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4. 투자: 2~4%로 완만한 회복

시장의 컨센서스: 기관들은 대체로 2026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2~4% 수준으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25년 5천억 위안 규모 신형 정책성 금융 도구 효과, 정부채 발행 확대, AI 등 기술 투자 증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수급 구조와 지방 재정 여건이 여전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회복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부동산: 조정 지속

시장의 컨센서스: 기관들은 대체로 2026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수요 부진, 재고 증가, 가격 약세, 전망에 대한 불안감 등을 그 이유로 지적하고 한다. 또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6. 수출: 회복세 둔화

시장의 컨센서스: 대다수의 외국계 기관들은 2026년 중국의 수출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5년 수출을 뒷받침했던 선제적 수출 물량과 위안화 약세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고, 미중 관세 유예 조치는 일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수출 둔화 흐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기관별 전망 차이: 다만 도이치뱅크는 2026년 수출 증가율을 6%로 전망하며,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다. 높은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중 관계가 한동안 안정적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수요도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7. 리스크 요인

상방 요인:

- 1) 재정 정책 강도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 2) 정책 지원의 중심이 투자에서 소비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재정 승수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
- 3) 정부가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AI와 하드테크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계
- 4) 사회보장 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가계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 5) 첨단기술 제조업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6) 미중 관계가 완화되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인하되거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면제가 시행될 수 있다.

하방 요인:

- 1) 출혈경쟁 억제 정책으로 기업들이 가격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파산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 2) 재정·통화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 3) 부동산 경기가 다시 악화되고 건설사 부실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4)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추가 관세 부과, 대중국 기술 규제 강화, 원산지 규정 및 우회 수출 단속 강화 등이 시행될 수 있다.
- 5) 미국 외 국가들이 무역 장벽을 강화하면서 수출이 예상보다 더 크게 둔화될 수 있다.
- 6) 글로벌 AI 버블이 붕괴될 경우 수출이 악화되고 시장 심리가 위축되며 AI 산업 전반의 경기 흐름이 둔화될 수 있다. (출처: 신량차이징)

참고자료

- ▶ 선변 24 샤오스(身边24小时). 중국, 세계 최초 12인치 탄화규소 에피택셜 웨이퍼 개발 성공

<https://baijiahao.baidu.com/s?id=1852398641385717894&wfr=spider&for=pc>

- ▶ 베이징르보(北京日报). 징(京)AA0001Z! 중국 최초 L3 자율주행 전용 번호판 발급..베이치 첫 주자

<https://baijiahao.baidu.com/s?id=1852352388012259897&wfr=spider&for=pc>

- ▶ 상상다이니칸서웨이(想象带你看社会). CATL, 전기 원양 선박 3년 내 사용 투입

<https://baijiahao.baidu.com/s?id=1851539760660998167&wfr=spider&for=pc>

- ▶ 신량차이징(新浪财经). 거시경제 신속 논평: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6년 중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https://stock.finance.sina.com.cn/stock/go.php/vReport_Show/kind/search/rptid/819810780318/index.phtml

CHINA 창업

[산업분석] 2026 년 휴머노이드 로봇 전망



2026 년 핵심 트렌드 및 전망

과열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26 년 초 여러 변수가 맞물리며 시장의 열기가 이어질 것이며, 테슬라 Optimus Gen 3 공개, 미국의 잠재적 정책 지원, 기술 고도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조정 국면은 물리 AI의 높은 개발 난이도, 제조 공정의 제약, 그리고 스타트업 재편 흐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시연 장면이 '원격 조작'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전한 자율화 구현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시연 장면이 자율 운행이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실제로는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격 조작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학습은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2026 년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자율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빅테크나 대형 AI 연구기관 가운데 일부가 로봇 사업 진출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AI 기반 기업가치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메타(Meta), 구글(谷歌), 애플(苹果), 아마존(亚马逊), 오픈 AI(OpenAI), 바이두(百度), 화웨이(华为) 등 주요 기업 가운데 일부가 로봇 개발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재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발개위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지나치게 빠른 성장과 과열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업은 이미 150

곳 이상에 달하지만, 검증된 실제 활용 사례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2026년 3월 발표 예정인 중국 '15차 5개년 계획'은 향후 산업 방향을 보다 분명히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AI 역량, 제조 기술, 실제 적용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을 중심으로 자본과 인재가 집중될 전망이다.

미국 역시 로봇 산업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 로봇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행정명령 발표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민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선도적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구현지능(Embodied Intelligence)'을 '15차 5개년 계획' 제안 사항에 포함된 6대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중국은 압도적인 제조업 역량을 바탕으로 AI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주요 자동차 및 소비전자 기업 대부분이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AI 로봇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이러한 산업 결합으로 중미 양국간 기술 격차가 점차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글로벌 구현지능 로봇 산업 전망이 담긴 분석 모델을 제시했다.

시장 흐름 및 주요 지표

■ 휴머노이드 로봇 100 지수

성과: 휴머노이드 로봇 100 지수는 2025년 2월 6일 출범 이후(구성 종목 조정 반영) 동일 기준 기준 25% 상승했다. 이는 S&P500, MSCI 유럽, MSCI 대만, MSCI 중국 지수를 웃도는 성과이나, MSCI 한국 지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구성: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과 연관된 전 세계 상장 기업 100개로 구성되며, 두뇌(반도체 소프트웨어), 몸체(산업 부품), 통합업체(완성 로봇 개발사)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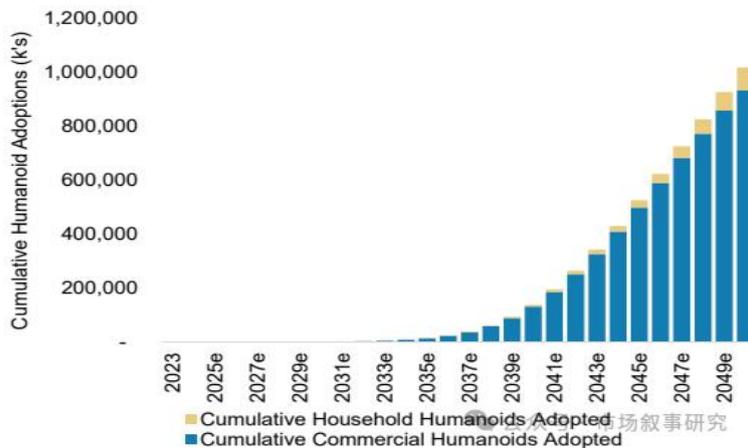
상승 종목: 12월 16일 기준, 지수 편입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MP Materials(+122%), 인텔(+93%), Lynas Rare Earths(+91%), 삼성전자(+90%), 북방희토(北方稀土)(+89%) 순이다.

부진 종목: 반면 다쏘시스템(达索系统)(-42%), 상인테크(上银科技)(-39%), Mobileye(-37%) 등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 지수

성과: 9 월 큰 폭으로 오른 뒤 10~11 월 조정을 거쳤고, 12 월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2 월 17 일 기준, 동일가중 지수는 이달 들어 2% 상승하며 MSCI 중국 지수(-4%)를 상회했다.

구성: 총 45 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두뇌(3 개), 몸체(31 개) 통합업체(11 개)로 나뉜다. 대표 종목으로는 바이두(百度), 커다쉴페이(科大讯飞), 닝더스다이(宁德时代), 후이촨기술(汇川技术), 순위광학(舜宇光学), UBTECH, 샤오미(小米), BYD(比亚迪) 등이 포함된다.



산업 동향 및 시장 흐름

■ 투자 동향

글로벌: Physical Intelligence 는 6 억 달러를 조달했으며(기업가치 56 억 달러), Skild AI 는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가 참여하는 10 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 유치를 협의 중이다(기업가치 약 140 억 달러). 중국에서는 딥로보틱스(深度机器人)가 약 7,000 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중국: 2025 년 1~11 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투자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 정부 및 정책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항저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규모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으며, 총 약 1,870 억 위안 규모의 산업 펀드가 조성됐다. 다만 국가 발개위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버블 리스크'를 경고하며, 성장 속도와 산업 내실 간 균형을 강조했다.

미국: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차원의 로봇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국을 겨냥한 경쟁력 강화 목적의 행정명령 발표 가능성도 거론된다.

■ 신규 협력 및 도입 사례

1X & EQT Ventures: 1X는 EQT와 계약을 체결하고, EQT 산하 300여 개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만 대의 NEO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들 로봇은 공장과 물류창고 등 산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Agility Robotics & Mercado Libre: Agility Robotics는 미국 텍사스주 물류센터에 Digit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했으며, 향후 라틴아메리카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신규 진입 기업

Sunday Robotics: 비공개 개발 단계를 마치고 3,500만 달러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으며, 가정용 로봇 'Memo'를 선보였다.

Tangible Robotics: 가정용 휠형 로봇 'Eggie'를 출시했다.

■ 신형 로봇 모델 및 기술 진전

테슬라 Optimus: 개선된 하드웨어를 공개하고, 사람에 가까운 달리기 동작을 구현했다. 발에는 관절형 발가락 구조가 적용됐다.

메이디그룹(美的集团): 세계 최초의 6 팔 구조 '슈퍼 휴머노이드' 로봇 'MIRO U'를 공개했다. 이 로봇은 산업 현장용으로 개발된 모델이다.

Agile Robots(독일):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Agile ONE'을 선보였다.

Humanoid(영국): 이족보행 로봇 'HMND 01'을 공개했다. 조립 완료 후 48시간 이내 안정적인 보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EngineAI: 이소룡의 회전 발차기 동작을 구현한 'T800'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다.

■ 소프트웨어·AI 기술 발전

Physical Intelligence: 시각, 언어, 행동 통합 모델 ' $\pi^*0.6$ '을 공개했다. 새로운 RECAP 강화 학습 방식을 적용해, 작업 수행의 안정성과 효율을 동시에 개선했다.

유니트리(UNITREE, 宇树科技): 휴머노이드 로봇용 '앱스토어' 플랫폼 출시를 예고했다. 사용자는 로봇의 동작 기능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며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다.

■ 기타

애지봇(AGIBOT, 智元机器人): 설립 3년 만에 휴머노이드 로봇 누적 생산 5,000 대를 달성하며 제조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시장 규모 및 도입 전망

모건스탠리(摩根士丹利)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 누적 약 1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연간 시장 매출 규모는 최대 7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도입 속도 전망

2036년: 누적 2,440만 대(잠재적으로 대체 가능한 노동력 1억 명 가운데 약 2%)

2040년: 누적 1억 3,800만 대(약 14%)

2050년: 누적 10억 1,900만 대

초기 도입은 가정보다 상업 및 산업 현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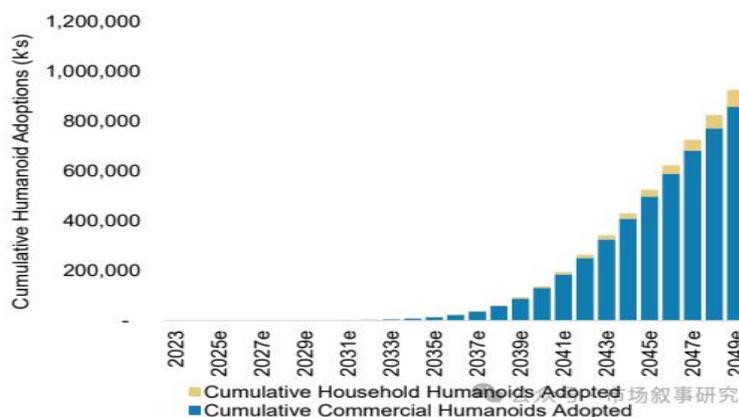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중국 중심)과 북미(미국 중심)가 최대 시장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급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격 전망

고소득 국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평균 판매가격(ASP)이 초기 20만 달러 수준에서 시작해, 공급망 안정과 양산 확대에 따라 2050년에는 7만 5,000달러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저소득 국가: 초기 평균 판매가격은 약 5만 달러 수준이 될 것이며, 대량 생산과 비용 절감 효과에 힘입어 2050년에는 약 2만 1,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빅테크 참여 현황

보고서는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로봇 분야 참여 현황도 함께 분석하였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Optimus 를 개발

엔비디아: Project Gr00t 를 통해 다수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와 협력하였으며, Isaac Lab 등 틀을 제공

아마존: 사내 로봇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Agility Robotics 의 주요 협력 파트너임

구글: DeepMind–Appttronik 와 협력하고 있으며, Gemini Robotics 를 주력 개발

마이크로소프트: Figure AI 의 협력사 겸 지원 파트너임

메타: Reality Labs 내 로봇 전담 팀을 신규 설립

애플: 데스크톱 로봇 개발을 검토 중이며, 휴머노이드 설계 가능성도 모색

중국: 바이두(百度), 화웨이(华为), 텐센트(腾讯), 알리바바(阿里巴巴), 바이트댄스(字节跳动), 샤오미(小米) 등도 투자, 자체 개발, AI 모델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결론 및 시사점

신중한 낙관론: 2026 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여전히 높은 기대와 관심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기술적 한계, 특히 완전한 자율화의 어려움과 제조 현장의 제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 전반의 구조 재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미 양강 구도: 중국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 속도를 높이며 미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역시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진화: 하드웨어 성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테슬라가 공개한 로봇의달리기 동작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와 AI, 특히 자율성 구현은 여전히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원격 조작과 데이터 수집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다.

생태계 확장: 빅테크 기업들이 진입하고,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투자와 협력, 응용 확대 등 전반적인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시장 잠재력: 2050년에는 조 단위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기술 고도화와 비용 하락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초기 보급은 상업 및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통(人形机器人产业通). 2026년 휴머노이드 로봇 전망(人形机器人 2026年展望). (25.12.26)

<https://mp.weixin.qq.com/s/QB9nXsczE3j87CDPzvMIMA>

[산업분석] <사이언스> 2025년 '10대 과학기술 혁신 성과' 발표, 중국 여러 연구 성과 선정

미국의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는 최근 2025년 '10대 과학기술 혁신 성과'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성장이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고인류연구소와 허베이(河北) 지질대학 공동 연구진이 하얼빈에서 발견된 고인류가 데니소바인임을 밝혀낸 연구, 화중농업대 연구진이 벼의 고온 내성을 조절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발견한 성과도 명단에 올랐다.

중국, 글로벌 재생에너지 성장 주도



올해 들어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글로벌 재생에너지 생산이 빠르게 확대됐으며, 상반기 기준 신규 발전량이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을 완전히 상회했고, 총 발전량에서도 화석연료의 발전량을 넘어섰다. 중국은 이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리튬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빠르게 확대하여 글로벌 선도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중국의 저비용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소형 옥상 태양광 시스템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럽과 남아시아,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남반구 신흥국 지역 수백만 가구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희귀 질환 치료 맞춤형 유전자 편집

지난 5월,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 병원(美国费城儿童医院)과 펜실베이니아대 의대(宾夕法尼亚大学医学院) 연구진이 희귀 유전 질환을 앓는 영아에게 맞춤형 유전자 편집 치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 치료는 유전자 치료가 실제 환자 치료에 맞춤형으로 적용된 첫 임상 사례로, 향후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유전자 치료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질 치료 신약 2종 승인

올해 두 종류의 새로운 임질 치료제가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등장한 임질 치료 신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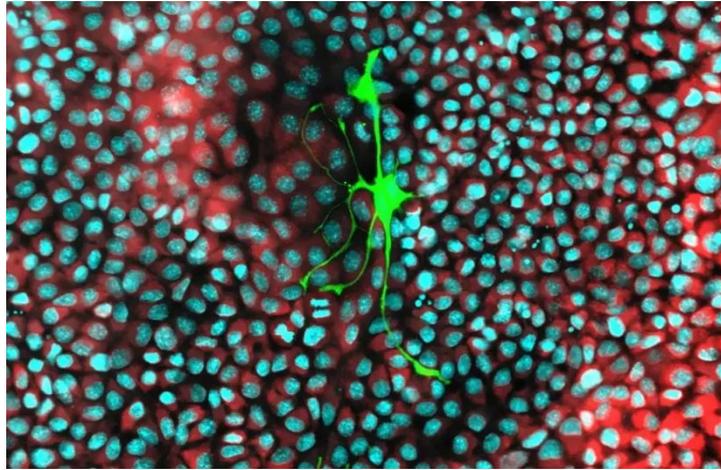
신약 제포티다신(Gepotidacin)과 졸리플로다신(Zoliflodacin)은 세균의 DNA 복제에 필수적인 효소를 억제하며, 치료 효과와 안전성도 모두 확인됐다. 특히 경구 투여가 가능해 주사 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 제포티다신은 이미 요로 감염 치료제로 승인됐으며, 임질 치료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FDA는 이와 같은 맞춤형 항균제의 병합 임상시험을 허용하면서, 향후 항생제 내성 균에 효과가 있는 임질 치료제 개발의 길을 넓혔다.



신경세포, 암 전이를 돕는 '조력자' 역할 확인

지난 6월, 미국 사우스앨라배마대(美国南阿拉巴马大学)와 텍사스대 헬스사이언스센터(得克萨斯大学健康科学中心) 연구진은 신경세포가 '나노튜브 터널망'을 통해 암세포에 미토콘드리아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줄기성, 스트레스 저항 능력이 강화되며, 그 결과 암 전이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뇌 전이 병

변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됐다. 이번 연구는 암 전이가 일어나는 대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루빈 천문대, 새로운 관측 시대를 열다

올해 칠레에 베라 C. 루빈 천문대가 완공되면서, 천문 관측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천문대는 3일 밤마다 하늘 전체를 한 차례씩 관측하며, 10년 동안 변화를 포착해 천문학적 규모의 정밀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보다 훨씬 많은 태양계 천체가 새로 발견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설로만 존재하던 제9행성의 존재도 확인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우주 폭발 현상을 관측하고, 은하의 형성과 진화를 연구할 예정이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우주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얼빈 고인류, 데니소바인으로 확인

데니소바인의 실제 모습은 과학계의 미제로 남아 있었다.

올해 6월 발표된 두 편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고인류연구소 푸차오메이(付巧妹) 연구팀과 허베이 지질대학 지창(季强) 연구팀은 하얼빈에서 발견된 약 14만 6천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거의 완벽한 고인류 두개골을 정밀 조사한 결과, 해당 고인류가 데니소바인에 속하며 미토콘드리아 계통 역시 초기 데니소바인 계통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발견은 오랫동안 미궁으로 남아 있던 데니소바인의 실제 모습에 단서를 제공했다.



대형언어모델, 과학 연구의 새로운 도구로 부상

올해 대형언어모델(LLM)은 과학 연구 전반에서 놀라운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수학 분야에서는 딥마인드의 Gemini LLM 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OpenAI의 GPT-5는 조합수론과 그래프 이론 분야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에 해법을 제시했다. 화학 분야에서는 추가 학습을 거친 Meta의 Llama 모델이 단 15회의 실험만으로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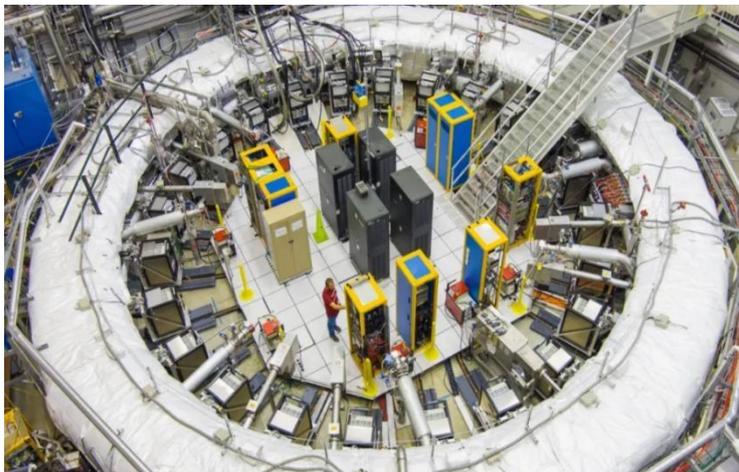


반응의 최적 조건을 찾아내며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였다. 생물학 분야에서는 구글의 'AI 공동 과학자' 시스템이 간 섬유화 치료 후보 물질을 신속히 발굴하고, 단 이틀 만에 세균 DNA 기생 확산 메커니즘을 재현하는 성과를 거뒀다.

μ(뮤온) 자기 이상값, 최종 결론에 도달

지난 6 월, 국제 입자물리학 연구진은 뮤온 자기 이상값에 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2021 년과 2023 년에 발표된 기존 측정값과 완전히 일치했으며, 측정 정밀도는 127ppb(10 억 분의 127)까지 향상돼, 당초 목표치였던 140ppb 를 넘어섰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뮤온 자기 이상 측정 기록이다.

특히 최신 이론 비교 과정에서 격자 양자색역학 계산법이 활용되면서, 초정밀 입자 물리 연구에서 해당 기법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종 이식, 신기록 경신

올해 이종 이식 분야는 돼지 장기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체 내 동물 장기의 생존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성공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에서는 한 환자가 유전자 69 곳



을 수정한 돼지 신장을 이식받아 약 9개월간 정상 기능을 유지하며 관련 최장 기록을 세웠다. 중국에서도 한 여성 환자가 유전자 6곳만 수정한 돼지 신장을 이식받아, 약 9개월간 안정적인 기능을 유지했으며, 이 역시 기존 기록을 크게 넘어서는 성과로 평가된다. 아직 과제가 남아 있지만, 올해의 성과는 이종 이식이 실제 임상 적용 단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 연구진, 벼 고온 내성 '유전자 스위치' 발견

올해 4월, 중국 화중농업대 연구진은 QT12 유전자가 야간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벼의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막는 핵심 조절 인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야간 고온 지역에서 533개 품종을 비교 분석한 결과, QT12가 벼의 야간 고온 내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했다. 고온에 취약한 품종은 밤 기온이 높을 때 QT12가 활성화되면서 전분 구조가 흐트러지고 쌀 품질이 떨어졌다. 반면 내열성 QT12 유전자를 지닌 품종은 수확량과 품질을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해당 유전자를 재배 품종 '화잔(华占)'에 적용한 결과, 고온 야간 환경에서도 수확량이 78% 증가했고 분질미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 유전자가 육종이나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확산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주요 작물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커지르보(科技日报). <사이언스> 2025년 '10대 과학기술 혁신 성과' 발표, 중국 여러 연구 성과 선정(《科学》公布 2025年度十大突破! 中国多项成果入选). (25.12.26)

<https://mp.weixin.qq.com/s/DNceaw2v6cf4Elwmd95ORQ>

[기업분석] 중국 자율주행 풀스택 기술 및 운영 서비스 제공업체 - 모구처렌(蘑菇车联)**기업 개요**

모구처렌 정보기술유한회사(蘑菇车联信息科技有限公司, Mogo.ai)는 2017년 설립 이후, 물리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AI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해 왔다. 이를 통해 AI가 현실 환경을 이해하고 물리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모구처렌의 핵심 사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AI 네트워크 사업: 기업은 대형 모델 MogoMind를 기반으로, 물리 세계를 실시간으로 디지털화하는 AI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네트워크는 AI가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이해한 뒤, 상황에 맞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기술은 스마트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 저고도 무인기,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도시 운영과 관리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자율주행 사업: 모구처렌은 L4 전장 양산 자율주행 차량을 다수 선보였다. 현재 RoboBus, RoboSweeper, RoboTaxi 등을 중심으로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10여 개 도시에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제품

■ AI 디지털 도로 기지국

구분	사진	소개
AI 디지털 도로 기지국		AI 디지털 도로 기지국은 모든 교통 요소를 감지하고, 지능형 연산과 통신을 수행해 협업형 의사결정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조정 및 관리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도시 일반 도로, 고속도로, 관광지, 산업단지 등에 빠르게 확산 적용할 수 있으며, 도로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L0~L4의 모든 스마트 커넥티드카를 지원한다.

■ 자율주행 자동차

구분	사진	소개
Robotaxi	MOGO T1 	다양한 적용 환경, 높은 비용 효율, 차-도로 협력, 대규모 운영 최적화
	MOGO T2 	프리미엄급, 최상급 사용자 경험, 차-도로 협력, 비즈니스-행사 대응
Robobus	MOGO B1 	다양한 적용 환경, 높은 비용효율, 차-도로 협력, 대규모 운영 최적화
	MOGO B2 	통합설계, 자체개발, 전장 맞춤형, 미래기술형 디자인
	MOGO M1 	무인화, 자체개발, 풀스택 자체개발, 엔터공간
	MOGO C1 	풀스택 자체개발, 높은 비용효율, 차-도로 협력, 신에너지 구동
	MOGO 차량 라인업 	우수 생태계, 다양한 운영 형태, 폭넓은 차량 구성, 통합 관제·운영
모구 자동차 두뇌		모구처렌은 L4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부품을 자체 설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은 ADCU, RTK, OBU, 5G 통신 모듈 등 하드웨어와, ADCU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 'MOGO AP'로 구성돼 있고, L0~L4의 모든 스마트커넥티드카의 스마트화 업그레이드를 지원함

■ 스마트 교통 교통 클라우드 플랫폼

구분	사진	소개
디지털 기반 플랫폼 (DMP)		모구처렌이 자체 개발한 고성능 데이터 플랫폼으로, 강력한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도로변 기지국, 각 단계의 커넥티드카,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통합, 정제, 변환, 구조화된 형태로 저장하고, 여기에 대규모 AI 연산을 적용해 데이터를 융합, 가공, 고도화함으로써, 상위 계층의 다양한 스마트 교통 상용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함

클라우드 관제 플랫폼 (Zion)		DMP와 연동해 전 지역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분석하고, 운영 상황에 맞춰 최적의 교통 전략을 수립해 차량을 원격 제어하고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교통 안전과 관리 효율을 향상시킴
교통 인텔 리전스 플랫폼 (Matrix)		모구처렌이 구축한 차세대 디지털 교통 시각화·의사결정 플랫폼으로, 스마트 교통 전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 자산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최종 단계의 운영 시스템

핵심 기술

■ L4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AI 디지털 도로 기지국 최초 자체 개발

해당 기지국은 표준화된 도로변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다. 기지국에서 운영되는 MRS 시스템의 인식 알고리즘은 업계 C4 도로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을 보이며, L0~L4의 스마트 커넥티드카를 지원할 수 있다.



■ 차량 단말장치의 핵심 기술 역시 풀스택 자체 개발

다양한 유형의 L4 자율주행 차량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에는 '모구(蘑菇) 자동차 두뇌'를 비롯, 차체·채시 영역, 자율주행 영역, 스마트 콕핏 영역, 그리고 L4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스템 'MOGO AP' 등이 포함된다.



■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기술로 스마트 교통 분야 선도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과 시스템, 이른바 '교통 인텔리전스'를 통해 차량, 도로, 교통 참여자 등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교통 데이터를 밀리초 단위로 실시간 처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교통 전반의 협력 운영과 관리 역량을 높이고, 상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자산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사업 진행 현황

■ 베이징 통저우(通州): 수도 부도심 '디지털 통저우' 구축

베이징 도시 부도심인 통저우 지역에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형'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 커넥티드 도로 인프라를 조성하고, 도시 단위의 스마트 교통 디지털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사회 거버넌스 수준을 높이고 '디지털 통저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16 억 위안에 달한다.



■ 후난(湖南) 형양(衡阳): 중국 최초 도시급 자율주행 상용화 프로젝트

중국 최초의 도시급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구축했다. 해당 사업은 도시 주요 간선도로 약 20km 구간에 적용됐으며, 2022년 7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자율주행 버스, 시내버스, 순찰차, 청소차 등이 현장에 대량 투입돼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 총 규모는 5억 위안에 달한다.



■ 윈난(云南) 다리(大理): 서남 지역 최초 '스마트 커넥티드+스마트 관광' 생태 시범구

중국 서남 지역 최초의 '스마트 커넥티드+스마트 관광' 생태 시범구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1월 공식 출범했으며, 현재 자율주행 택시, 환경미화 차량, 순찰차, 무인 판매 차량 등 약 100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 운영에 투입되고 있다. 사업 규모는 10억 위안에 달한다.



■ 쓰촨 청두(成都) 텐푸신구(天府新区): 국가급 첨단기술개발구와 스마트커넥티드 산업 거점 공동 조성

자율주행, 차-도로 협력, AI 클라우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차·도로·클라우드 통합'을 핵심으로 한 스마트 커넥티드 종합 응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스마트 커넥티드 산업 거점과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기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30 억 위안에 달한다.



■ 후베이(湖北) 어저우(鄂州): 공항(临空)경제구를 핵심 '항공 물류 거점'으로 육성

모구처렌은 후베이성 어저우 공항경제구에서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 도로를 포함한 디지털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무인주행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해당 공항경제구가 후베이성의 대외 '항공 물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프로젝트 사업 규모는 11 억 1,400 만 위안에 달한다.



■ 장쑤(江苏) 우시(无锡): 도시급 스마트 커넥티드 혁신 응용의 표준 사례

량시구(梁溪区)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 인프라를 스마트 커넥티드 환경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디지털 트윈 기반 교통 플랫폼과 자율주행 운영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자율주행 차량의 대규모 운영을 통해 도시급 스마트 커넥티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업 규모는 20 억 위안에 달한다.



■ 베이징(北京) 순이(顺义): 중국 최초 개방형 5G 상용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프로젝트

모구처렌은 2019년 10월, 국가 스마트 자동차 및 교통(베이징-허베이) 시범구 내 베이징 순이 기지에 중국 최초의 개방형 5G 스마트 교통 차량·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구축했다.



■ 청두(成都) 유니버시아드: 다양한 환경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모구처렌은 제 31 회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의 자율주행 공식 공급사로 선정돼,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자율주행 기업으로서는 중국 최초로 세계적인 종합 스포츠 행사에 공식 참여한 사례다.



■ 칭화대학, 베이징 첸먼(前门): 친환경·저탄소 환경미화 서비스

2021년 8월, 모구처렌은 칭화대학교 캠퍼스에서 자율주행 공공 서비스 차량을 운영하며, 친환경·저탄소 기반의 산학 연계형 교육·생활 환경 조성을 지원했다. 같은 시기, 모구처렌의 자율주행 청소 차량은 베이징의 대표 상권인 첸먼다제(前门大街)에서 도시 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참고자료

- ▶ 모구처렌 공식 웹사이트(蘑菇车联官网). (25.12.26)
<http://www.mogo-ai.com/>

[지역분석] 옌자오 하이테크구

개요

■ 허가 일자

옌자오 하이테크구는 2010년 11월 설립

■ 주요 산업

전자정보, 신소재, 장비 제조

■ 주요 지표

구분	2022년	2023년	성장률
하이테크 기업	153 곳	176 곳	15.03% ↑
총 자산	983.17 억 위안	990.32 억 위안	0.73% ↑
등록 기업 수	11421 곳	12643 곳	10.70% ↑
기술형 중소기업	85 곳	154 곳	81.18% ↑



옌자오(燕郊) 하이테크구는 1999년 12월 성급 하이테크구로 지정된 뒤, 2010년 11월 국무원 결정에 따라 국가급 하이테크구로 격상됐다.

옌자오 하이테크구는 베이징, 톈진 지역의 산업 이전을 적극 수용하며 기술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전자정보, 장비 제조, 바이오·헬스, 신소재, 친환경 식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산업과, 관광 레저, 문화 콘텐츠, 본사 경제를 축으로 하는 현대 서비스업이 함께 성장하는 투트랙 성장 구조를 구축했다. 현재는 베이징 동부 지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현대화 산업 신구(新区)로 평가받고 있다.

개발구 내에는 각종 연구기관 61 곳, 연구소 9 곳, 국가급 중점 실험실 6 곳, 신형 산업기술 연구개발기관 5 곳, 국가급 공정연구센터 1 곳, 성급 공정기술센터 2 곳, 국가급 기업기술센터 2 곳, 성급 기업기술혁신센터 5 곳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기술형 중소기업, 하이테크 기업,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 가젤기업, 기술 선도 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산업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입주 기업은 총 5,690 곳으로, 이 가운데 외자기업 87 곳, 규모 이상 핵심 기업(四上) 248 곳, 전정특신 기업 43 곳, 가젤기업 25 곳, 하이테크 기업 176 곳이 포함돼 있다.

KIC 중국 뉴스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일행, KIC 중국 방문



지난 12월 24일,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강건욱 단장과 재단법인 관악중소벤처진흥원 김준학 원장 등 일행이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를 방문했다. 양측은 △한-중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 성과의 사업화 협력 △향후 교류 방향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김종문 센터장은 "KIC 중국은 한중 양국의 혁신자원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기술혁신·산업협력·창업교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교류 메커니즘 구축, 혁신 자원 연계, 프로젝트 현지 정착을 통해 한국 혁신 주체들이 중국 생태계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강건욱 단장은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의 기능·역할과 한국 대학의 창업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과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김종문 센터장은 이어 "중국은 AI를 비롯해 차세대 정보기술·지능제조·신에너지·바이오 의약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풍부한 응용 시나리오와 막대한 시장 규모, 강력한 혁신 역량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 혁신 주체들에게 폭넓은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문단은 "서울대학교는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의 활발한 산업 생태계와 시장 검증 환경을 활용해 한국 초기 창업팀의 중국 진출 및 인큐베이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하드테크 분야에서의 높은 상호 보완성에 공감하며, △크로스보더 인큐베이션 △기술매칭 △인재 공동 양성 등에서 실무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혁신창업 환경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종문 센터장은 “중국은 대학·연구기관을 혁신 원천으로 삼고,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과 자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인큐베이션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단은 이에 높은 관심을 표하며 한-중 간 창업 인큐베이션 및 기술이전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창업 교류 △프로젝트 연계 △인재 협력 △정보 공유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상시적인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해 양 기관 및 연계된 혁신 주체 간의 보다 심층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KIC 중국, 한중 청년과학자 교류 좌담회서 한중일혁신협력센터와 MOU 체결



지난 12월 19일, 중국 옌타이에서 한중 청년과학자 교류 좌담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가운데,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주최 측인 한중일혁신협력센터 및 관계 기관과 함께 양국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산업 리더,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며, 행사에는 중국과학기술부 국제협력사 부사장 쑤젠(孫健), 산둥성 과학기술청 부청장 주언위안(朱恩元),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사 김상섭, 옌타이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교류의 결정적 성과로, KIC 중국과 한중일혁신협력센터는 '강점 상호 보완, 자원 공유, 협력 혁신, 상호 호혜·상생'을 핵심 원칙으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술 매칭 및 프로젝트 교류 행사 공동 개최, 혁신·창업 지원 생태계 공동 구축, 산학연 심층 융합과 기술 사업화 및 현장 적용 가속화 등 3대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본격화함으로써 한중 혁신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 개최와 MOU 체결을 통해 한중 양국 청년과학자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고, 산학연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KIC 중국은 협력의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한중 상생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계획이다.

KIC 중국 창업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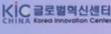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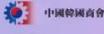



KIC중국 창업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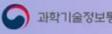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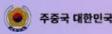
12대 국가전략기술

2026.03.18 CHINA·BEIJING

주최/주관기관


후원기관


참가신청 2025년 12월 30일(화)~2026년 2월 8일(일)

-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
-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info@kicchina.org



장소 베이징 ·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전시센터 2층 원명홀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展示中心2楼 圆明厅)

대회일정

26.02.09~26.02.12	내 · 외부 심사
26.02.13	결승진출자(팀) 공지
26.02.23~26.03.06	결승진출자(팀) 1:1 멘토링 <small>(창업계획서 작성, 중국진출전략 및 발표방법 등 멘토링)</small>
26.03.18	2026년 <KIC중국 창업대회> 결승전 개최 <small>(기업당 10min발표+5min Q&A) 대회언어: 한중동시통역</small>

지원혜택

1. 수상자 상금 외 기업 1인에 한해 왕복 티켓 및 대회 기간 동안 숙박 제공
2. 한중 투자기관 네트워킹 지원
3. 중관촌포럼, 푸장혁신포럼, 대만구과학포럼, 중국공신부 창업대회, 중관촌 창업대회, HICOOL 글로벌 창업대회, 골든팬더 창업대회 등 참가 우선 지원
4. 결승진출 전 1:1 멘토링 지원 등

(세부 지원사항 QR코드 스캔하여 확인 바람)

협력기관













행사 정보

명칭	기간	장소	분야
제 2 회 인공지능 혁신 국제 심포지엄	2026.01.09-2026.01.11	산야	인공지능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신경망 및 딥러닝 국제 컨퍼런스 (HNNDL 2026)	2026.01.09-2026.01.11	상하이	인공지능
제 5 회 빅데이터 경제 및 디지털 관리 국제 학술대회 (BDEDM 2026)	2026.01.09-2026.01.11	광저우	전자정보
인공지능 및 핀테크 국제 컨퍼런스(IC-AIF 2026)	2026.01.09-2026.01.11	광저우	인공지능
제 4 회 국제 재료과학 및 스마트 제조 컨퍼런스 (MSIM 2026)	2026.01.09-2026.01.11	다렌	재료과학·제조
제 11 회 국제 금융 혁신 및 경제 개발 컨퍼런스 (ICFIED 2026)	2026.01.09-2026.01.11	톈진	금융
제 2 회 전력 전자 및 전력망 시스템 국제 컨퍼런스 (PETGS 2026)	2026.01.09-2026.01.11	벙부	에너지
제 2 회 국제 생체의학 공학 및 의료기기 학술대회 (ICBEMD 2026)	2026.01.09-2026.01.11	선양	바이오의약
제 2 회 광전자 과학 및 지능형 센싱 국제 컨퍼런스 (ICOIS 2026)	2026.01.09-2026.01.11	쿤밍	전자정보
산업용 사물인터넷 및 정보기술 국제 컨퍼런스 (IoTIT 2026)	2026.01.09-2026.01.11	시안	전자정보
임베디드 시스템, 모바일 통신 및 컴퓨팅 국제 컨퍼런스 (EMC ² 2026)	2026.01.12-2026.01.14	홍콩	통신
제 2 회 인공지능 및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국제 컨퍼런스 (ICAICN 2026)	2026.01.16-2026.01.18	광저우	인공지능
제 5 회 원격탐사 및 측량 국제학술회의(RSSM 2026)	2026.01.16-2026.01.18	난징	원격탐사 및 측량
제 3 회 전력전자 및 인공지능 국제 컨퍼런스(PEAI 2026)	2026.01.16-2026.01.18	난징	인공지능

KIC 중국 주간 중국 창업

www.kicchina.org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발행처: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 김종문
전화: +86-10-6780-8840
메일: info@kicchina.org